

‘11전 11승’ 타이거즈라 쓰고 무적이라 읽는다



아! 좋다 지난 3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한국시리즈 5차전 KIA 타이거즈 대 두산 베어스 경기. 두산을 7대6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KIA 선수들이 김기태 감독을 행가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아찔했던 순간 6회말 2사 2루 KIA 안치홍과 버나디나가 두산 최주환의 플라이볼을 잡으려다 부딪히고 있다.



진짜 금이야? 핏딘과 헤티가 한국시리즈 우승 메달을 받아들고 진짜 금인지 확인하고 있다.

사진=잠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KS 첫 만루포 3회초 2사 만루에서 이범호가 홈런을 날린 뒤 환호하고 있다.



흥겨운 세리머니 KIA 선수들이 관중석을 향해 익살스런 몸짓으로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송년·신년모임
지금 예약하세요!

지난 30여년, 광주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모임을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